

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Legal Aware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Young-Mi Cho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 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도 소재의 M대학의 간호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성은 법의식($r=.179, p=.014$), 양성평등의식($r=.446, p<.0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식($\beta=.166, p=.028$)과 양성평등의식($\beta=.536, p<.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0.2%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켜 인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 on character from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colleg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given to 189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y M in the Jeon-la province from August to September 2022. For analysis, SPSS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correlate with legal consciousness ($r=.179, p=.014$)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r=.446,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were legal consciousness ($\beta=.166, p=.028$)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beta=.536, p<.001$), with explanatory power at 30.2%. In conclusion, it was revealed that to enhance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trengthening programs that can enhance character by improving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aracter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Cho(Sun Moon Univ.)

email: choyoung23@sunmoon.ac.kr

Received March 22, 2023

Revised April 25,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 왕따와 학교폭력[1], 아동학대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며[2]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2월 처음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3]. 이는 간호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4]. 인성을 높이는 방안의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5], 또는 직장생활의 부적응[6] 등과 같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여, 사회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과 인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법의식(Law Consciousness)은 법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 또는 규범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7]. 또한, 법의식은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마음자세나 정신, 감정, 사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8]. 법의식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며[7], 사회구성원은 법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법의 실현을 통해 우리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9]. 법의식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법의식의 함양은 범죄로부터 예방, 비행충동억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9], 또한 법의식을 통해 폭력과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처럼 중요한 법의식이 관계의 형성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법의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9]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일반인 대상[8], 또는 특수 집단의[10] 법의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간호와 의료 방면에서 연구한 법의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간호사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환자를 돌보게 될 간호학생에게 환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의 예방을 위해 법의식의 함양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 생각된다.

현대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우리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의식이다. 양성평등의식이란 특정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1].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은 물론 활발한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이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12],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는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2년을 기준으로 146개국 중 99위로 알려져[13]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양성평등의식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4-16], 더 나아가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이 결혼의식이나 출산의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졌다[17]. 이처럼 양성평등의식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며 간호를 적절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간호사가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이 조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성의 개념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 보면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18], 인성은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함축한 개념으로 그 특성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1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인성은 그 정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다고 하였다[5]. 또한, 건전한 인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직장생활에서도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6]. 간호대학에서도 팀으로 함께 공부하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TBL(Team Based Learning)수업이 성행하면서 학생들은 함께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음을 감안할 때 인성의 정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이 힘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간호대학에서는 사람을 상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해야하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교육인증 평가에서 역시 인성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20]. 또한, 간호사의 인성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간호조직에서의 협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21], 인성이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22,23]. 간호대학생은 이후 간호사가 되어 질병을 다루고, 아픈 환자를 다루어야 하는 직업임을 인식할 때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을 위해 인성교육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많은 병원들은 신규간호사채용 절차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 및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에게 어떤 능력보다 인성적 자질을 강조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24], 간호대학에서는 인성이 훌륭한 간호사를 배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인성과 상관성이 있는 요소들을 찾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원만한 관계의 형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성이 법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법의식과 인성과의 관련을 본 최근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또한 여성이 많은 집단인 간호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식이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법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그리고 인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법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 지역 M대학교 간호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학과장과 면담하였고 학과의 승인을 받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학생대표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어떠한 설득이나 권유는 없었다. 설문은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됨을 밝혔고 연구 이외의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연구의 종료와 함께 자료가 폐기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이 배부되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을 전송한 189명만 자료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 12개를 지정하였고 최소 표본수는 184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89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법의식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곽한영[2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법의식은 13문항으로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법의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로 나타났다.

2.3.2 양성평등의식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KGES:Korean Gender Egalitarianism) 중 단축형을 사용하였다[26]. 단축형은 12개의 문항으로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으로 4개의 하위구성 요소별로 각

3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평정 척도로서 1점에서 5점까지 문항 내용이 대상자의 생각과 태도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높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5$ 점으로 나타났다.

2.3.3 인성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 개발연구에서 김선주[27]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성척도는 총 37개의 문항으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문항은 예 5문항, 효 5문

Table 1.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haract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9)

Spec.		N(%)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aracter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heffe			sheffe			sheffe		
Gender	Male	32(16.9)	2.93±0.44	0.004	0.951	3.87±0.92	9.047	0.003	3.81±0.55	0.675	0.412
	Female	157(83.1)	2.94±0.47			4.3±20.74			3.90±0.62		
Age	20-25	130(68.8)	2.97±0.47	1.322	0.263	4.26±0.81	0.612	0.654	3.91±0.62	0.321	0.864
	26-30	34(18.0)	2.85±0.40			4.12±0.79			3.81±0.49		
	31-35	8(4.2)	3.06±0.56			4.08±0.98			3.97±0.31		
	36-40	8(4.2)	2.68±0.48			4.54±0.47			3.94±0.92		
	Above 41	9(4.8)	2.86±0.47			4.31±0.55			3.77±0.70		
	Aver.	25.44									
Grade	1	49(25.9)	2.95±0.40	0.216	0.885	4.27±0.81	2.43	0.067	3.85±0.62	1.117	0.343
	2	37(19.6)	2.97±0.44			3.96±0.97			3.77±0.60		
	3	42(22.2)	2.94±0.40			4.24±0.72			3.88±0.52		
	4	61(32.3)	2.90±0.55			4.39±0.66			3.99±0.64		
Religion	Christian	46(24.3)	2.95±0.44	0.252	0.86	4.39±0.71	0.871	0.457	4.02±0.56	1.291	0.279
	Catholic	12(6.3)	2.94±0.53			4.10±0.97			3.69±0.61		
	Buddhist	9(4.8)	3.05±0.60			4.35±0.83			3.80±0.89		
	None	122(64.6)	2.92±0.46			4.19±0.80			3.86±0.59		
Numbers of Siblings	None	15(7.9)	2.86±0.36	0.397	0.811	4.16±0.83	0.814	0.518	3.87±0.51	0.593	0.668
	1	93(49.2)	2.92±0.49			4.18±0.82			3.82±0.60		
	2	58(30.7)	2.94±0.46			4.27±0.80			3.95±0.67		
	3	13(6.9)	3.07±0.41			4.50±0.56			3.97±0.33		
	Above 4	10(5.3)	2.96±0.41			4.49±0.59			4.02±0.67		
Living Types	With Family	106(56.1)	2.96±0.46	0.462	0.631	4.29±0.75	0.571	0.566	3.98±0.61	3.487	0.033
	Dormitory	21(11.1)	2.85±0.45			4.24±0.76			3.91±0.56		
	Alone	62(32.8)	2.93±0.47			4.16±0.86			3.72±0.59		
Major Satisfaction	Unhappy	11(5.8)	2.91±0.34	0.9	0.442	4.44±0.66	4.054	0.088	3.95±0.54	1.37	0.253
	So-so	80(42.3)	2.99±0.42			4.01±0.85			3.79±0.62		
	Happy	72(38.1)	2.87±0.51			4.40±0.72			3.93±0.59		
	Very Happy	26(13.8)	2.97±0.47			4.41±0.66			4.04±0.61		
G.P.A	Under 3	26(13.8)	2.99±0.44	0.388	0.761	3.90±0.82	2.309	0.078	3.91±0.63	0.221	0.881
	3.0-3.5	98(51.9)	2.93±0.47			4.25±0.83			3.85±0.65		
	3.6-4.0	49(25.9)	2.89±0.49			4.38±0.64			3.93±0.58		
	Above 4.1	16(8.5)	3.00±0.36			4.33±0.78			3.92±0.39		
Economic Status	High ^a	14(7.4)	3.35±0.28	6.566	0.002	4.01±0.83	0.793	0.454	4.05±0.72	0.636	0.531
	Middle ^b	144(76.2)	2.90±0.46			4.27±0.78			3.88±0.60		
	Low ^c	31(16.4)	2.90±0.43			4.19±0.83			3.83±0.56		

*G. P. A: Grade Point Average

항, 정직 5문항, 존중 5문항, 소통 3문항, 배려 4문항, 협동 5문항, 책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인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6$ 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그리고 인성의 특성을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그리고 인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그리고 인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89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여학생이 157명(83.1%)으로 남학생의 32명(16.9%)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44세로 나타났다. 연령은 25세 이하가 130명(68.8%), 26-30세가 34명(18.0%), 31-35세, 36-40세가 각각 8명(4.2%)이었고, 41세 이상의 대상자가 9명(4.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1학년 학생이 49명(25.9%), 2학년 37명(19.6%), 3학년 74명(22.2%), 4학년 61명(32.3%)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22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9명(5.9%)으로 많았다. 1명의 형제가 있는 학생이 193명(49.2%), 2명의 형제 58명(30.7%)이었고 3명과, 4명 이상, 외동인 학생이 각각 13명(6.9%), 10명(5.3%), 15명(7.9%)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106명(56.1%)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명(5.8%)이었고, 보통이 80명(42.3%), 만족과 매우만족은 각각 72명(38.1%), 26명(13.8%)으로 나타났다. 학점의 경우 3점 미만은 26명(13.8%), 3-3.5점은 98명(51.9%), 3.6-4점은 49명(25.9%), 4.1점 이상은 16명(8.5%)이었다. 경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31명(16.4%)이었고 중간이 144명(76.2%),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14명(7.4%)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2.93±0.46점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은 4.24±0.79점이었고, 인성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89±0.61점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하위 영역별 정도는 예(禮)가 4.08±0.69점, 효(孝)가 3.75±0.71점, 정직(正直)이 3.76±0.90점, 존중(尊重)이 4.02±0.73점, 소통(疏通)이 3.97±0.75점, 배려(配慮)가 3.91±0.77점, 협동(協同)이 3.77±0.81점, 책임(責任)이 3.88±0.7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s of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haracter (n=189)

	M±SD	Ranges
Legal Consciousness	2.93±0.46	1-5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4.24±0.79	1-5
Character	3.89±0.61	1-5
Courtesy	4.08±0.69	
Filial piety	3.75±0.71	
Honesty	3.76±0.90	
Respect	4.02±0.73	
Communication	3.97±0.75	
Consideration	3.91±0.77	
Cooperation	3.77±0.81	
Responsibility	3.88±0.77	

3.3 대상자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차이

법의식은 경제수준(F=6.566, $p=0.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성별, 나이, 학년, 종교, 형제 수, 거주형태, 전공만족 그리고 학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양성평등의식은 성별(F=9.047, $p=0.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인성의 경우 거주형태(F=3.487, $p=0.03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able 1].

3.4 대상자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89)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aracter
Legal Consciousness	1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063 .392	1	
Character	.179* .014	.446** <.001	1

$p<.05$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Character

(N=189)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 R ²	F(p)
(constant)	1.503	0.385		3.899	<.001	0.319	0.302	19.184 (<.001)
Legal Consciousness	0.217	0.098	0.166	2.226	0.028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427	0.059	0.536	7.205	<.001			
Living Types(Dormitory)	-0.02	0.12	-0.013	-0.168	0.867			

* Reference Group: Living Type(alone)

대상자의 인성은 법의식($r=.179, p=.0014$)과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평등의식($r=.446, p<.001$) 역시 상관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5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변수입력 방법은 입력(Enter Method)을 이용하였다. 회귀모형은 인성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주거형태를 포함하여 구축하였는데, 주거형태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통계량은 1.77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92-.999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은 1.001-1.008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었고,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에 의해 30.2%로 설명되었으며($F=19.184, p<.001$), 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성평등의식($\beta=.536, p<.001$)과 법의식($\beta=.166, p=.028$)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2.93 ± 0.46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중간인 3점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은 일반적 사항들 중에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수준과 법의식의 상관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법의 테두리에서 공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법의식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법의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사항은 연령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태도나 손해감수 준법의 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나[6]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은 나이나 학년과도 상관인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중매체나 개인 사회 서비스망(SNS)을 통해 법과 관련된 정보의 수준차이에서 온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은 양성평등의식과 인성 모두와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의 정도는 중간인 3점을 넘지 못하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그 정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의식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방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그 정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의식은 사회적인 규칙이 인간의 내면화되면서 이루어지므로 후천적 학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25]. 따라서 계속해서 간호대학생에게 정보제공 교육을 통한 법의식의 정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4.24 ± 0.79 점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된 다른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강은희[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는 3.85점(6점 만점), 변은경의[12] 연구에서는 3.26점(4점 만점), 김지은과 동료들[13]의 연구에서 3.72점(4점 만점), 김현영[14]의 연구에서 3.42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그 정도가 높았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9] 4.2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그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의 정도가 높았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역시 양성평등의식은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14,28,29].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은 학년과 형제 수[15], 학년, 나이, 거주형태, 경제적상황[12], 학년[13]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은 법의식과 인성,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은 사회적 활동에서 협력과 인간관계에서의 관계성에 중요함은 물론이고[13]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0]. 본 연구에서도 양성평등은 법의식과 인성과 상관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그 정도를 높이는 것은 법의식과 인성에도 상관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제공하여 그 정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에 3.89 ± 0.61 점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정우정, 유명미[2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는 4.17점(5점 만점)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 보다 높은 정도를 보여주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는 3.95점(5점 만점)[30], 3.76점(5점 만점)[31]으로 본 연구의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거주 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인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뒷사람과의 교류와 가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정 내의 교육으로 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성은 학년[31], 전공 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23]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성은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과 상관이 있으며,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나 법의식을 높이는 방안과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성에 영향을 주는 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의식의 준수를 강조하고 법에 대한 정보 및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알려주어 법의식을 높여

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파악하고 양성평등의 정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꾀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양성평등의식과 인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간호학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확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investigation into school violence. [cited 2023 March 10],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5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buse Victim Protection Status, 2021. [cited 2023 March 10], Available From: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EC%95%84%EB%8F%99%ED%95%99%EB%8C%80>
- [3]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2015. [cited 2023 March 1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 (13004,20150120)
- [4] Korea Institute of Nursing Education and Evaluation, 2019.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Handbook for Universities in the first half of 2019. Seoul.
- [5] E. Y. Yeo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 pp. 209-220,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22>
- [6] S. K. Kim, "Trend Analysis of Research Related to Persona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Network

- Analysi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2, pp.47-56,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12.047>
- [7] Minjungseo-gwan, 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 [8] S. W. Jung, M. S. Lee, "The Effect of Age on Legal Consciousness :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Law-abiding Indicator and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Law and Society*, No.70, pp.1-26, 2022.
DOI: <http://dx.doi.org/10.33446/KJLS.70.1>
- [9] M. K. Sun, "Moderating Effect of Law Consciousness Between Family Violence Experience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30, No.1, pp.197-222, 2022.
DOI: <https://doi.org/10.21181/KJPC.2021.30.1.197>
- [10] Y. J. Jeon, "A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e Legitimacy on Legal Consciousn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23, no.1, pp.27-52, 2021.
- [11] O. I. Park, J. S. Lim, J. S. Kim, "Androgynous equalitarianism of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and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16, No.1, pp.123-134, 2005.
UCI: G704-001337.2005.16.1.012
- [12] S. J. Yoon, E. K. Byun, "Factors Affect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 The Graduates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Vol. 29, No. 1, pp. 90-100, 2017.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7.29.1.90>
- [13] Donga Ilbo, 2021. [cited 2023 March 10], Available Fr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713/114424450/1>
- [14] E. K. Byun, "Factors affect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nursing college femal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pp.661-671, 2021.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1.059>
- [15] J.E. Kim, J. H. Kim, H. Kim, Y. K. Jeon, "Gender Egalitarianism, Collective Self-esteem, and Gender Role Conflict of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Female Cadets", *Military Health Policy Research Center*, Vol.37, No.1, pp.32-42, 2019.
DOI: <https://doi.org/10.31148/kimnr.2019.37.1.32>
- [16] H. Y. Kim,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482-491,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482>
- [17] E. H. Kang, M. Y. Kim, E. K. Byun,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3, pp.7-17, 2021.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433>
- [18]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cited 2023 March 10], Available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19] S. K. Kim,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s and Pathways of Character Facto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9, pp.634 - 643,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09.634>
- [20] S. Y. Park, H. C. Oh, "An Article o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during the Course of Traini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7 No.6, pp.149-155, 2022.
DOI: <https://doi.org/10.9708/jksoci.2022.27.06.149>
- [21] M. R. Kim, "Desirable Personality Required of Nurses in Clinical Nursing Field: Focus Group Interviews Centered 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0, No.12, pp.27-37, 2022.
DOI: <https://doi.org/10.22678/JIC.2022.20.12.027>
- [22] E. Y. Yeom, K. Seo, "Influenc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nurses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5, pp.445-454, 2018.
DOI: <https://doi.org/10.22678/JIC.2022.20.12.027>
- [23] J. W. Joung, Y. M. Ruy, "The influence of humanity,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6, pp.193-211,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6.193>
- [24] J. M. Kim, A. J. Hong, "A Study on the Work Personality Competency Using the Delphi Method",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3, No.5, pp.87-114, 2017.
DOI: <https://doi.org/10.24159/ioec.2017.23.5.87>
- [25] H. Y. Kwak, *Study about the effect of law-related education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youth : focused on delinquent girls*, Doctori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6] S. S. Ahn., I. S. Kim & G. M. Kim, Development of a Revised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R-KGES)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Seoul, 2016.
- [27] S. J. Kim,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scale based on the main pillar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3, pp.217-258, 2017.
- [28] H. M, C. J. Sun,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view of marriage and childre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1, pp.447-456, 202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1.447>
- [29] S. H.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Perceptions of

Marriage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Health & Welfare. Vol.2, No.3, pp.87-106, 2019.
DOI: <https://doi.org/10.23948/kshw.2019.09.21.3.87>

- [30] J.K. Lee, J.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5 pp.84-91,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5.84>
- [31] J. R. Lim,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10, pp.301-308, 2019.
DOI: <http://doi.org/10.15207/JKCS.2019.10.10.301>
-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2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Master's in Nursing Science)
-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질적연구, 건강정보이해능력, 간호교육, 한방간호